

추운 겨울 퇴근 길에 자동차 안에서 간단히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냉장고에 접속해 어떤 음식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집 근처 쇼핑몰에 들르는 세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 앞에 다가온 스마트 홈 시대의 우리 일상이다. '스마트 홈'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오는 2007년까지 전체 가국의 60%인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가 보급되고 차세대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07년 어느 주부의 일상을 통해 홈네트워크가 변화시킨 스마트 홈 세상을 잠시 엿보자.

글 · 박창선 기자

사진자료 ·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주거문화의 새로운 혁명, 홈네트워크

눈 앞에 펼쳐진 스마트 홈 세상

벤처기업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지원 엄마의 하루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한다. 아침 7시 기상. 오늘도 어김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람을 끈 후 지원 엄마는 주방으로 향한다. 어제 스마트폰으로 조리 예약을 하는 것을 깜빡하지는 않았나? 밥솥과 전자레인지의 열어 보고 조리 예약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한다. 남편 출근과 아이 등교 뒷 바라지를 마치고 나니 오전 8시, 거실 벽에 걸린 TV를 켜고 평소 좋아하던 아침 드라마를 본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지원 엄마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바로 뉴스. 드라마를 보면서도 화면 한쪽에 문자 정보로 서비스 되는 주요 뉴스를 꼼꼼히 챙긴다. 물론 이들 뉴스는 지원 엄마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미리 지정해 놓은 것이다.

이제 슬슬 청소를 해 볼까. 청소 로봇을 구입한 후부터 청소 시간은 지원 엄마의 운동 시간이 되었다. 로봇이 청소를 하는 동

안 지원 엄마는 살과의 전쟁을 위해 러닝 머신에 오른다.

운동을 마칠 즈음 다음 스케줄을 알리는 스마트 폰 알람이 울려댄다. 아차! 회사 동료들이랑 아침 회의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부랴 부랴 서재로 달려가 PC를 켜고 간단히 화상 회의를 마친 다음 동료 직원과 함께 오늘 처리해야 할 이미지 편집을 파트를 나누어 함께 작업한다. 작업 도중에 서영이 담임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영이가 몸살이 걸렸다는 메시지다. 미안하지만 일단 남은 작업을 동료에게 부탁하고 지원 엄마는 스마트폰 하나 달랑 챙겨서 급히 주차장으로 간다. 시간을 보아하니 서영이를 만나서 평소 다니던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늦을 것 같다. 차 안에 장착된 네비게이터로 학교 근처 소아과를 찾아보니 다행이 근처에 병원이 있다. 바로 진료 예약을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 지원 엄마. 의사 선생님이 서영이를 진찰하면서 감기 외에 다른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서영



이가 평소 다녔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원격 진찰을 의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해 준다. 집으로 가는 길, 긴장이 풀리자 점심을 거른 것이 생각나며 갑자기 출출해진 지원 엄마는 근처에 샌드위치랑 주스로 가볍게 요기할 수 있는 카페가 있는지 네비게이터로 검색을 한다.

창 밖이 보이는 자리로 앉은 지원 엄마는 카페에 들어설 때 자동으로 스마트 폰에 전송된 메뉴를 보고 이것 저것 주문을 한다. 조그마한 로봇이 배달한 음식을 먹다 보니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간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오늘 저녁은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 집에 음식 재료부터 확인해 보고 결정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냉장고에 접속한다. 이런 야채가 하나도 없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원 엄마는 집 근처 쇼핑몰에 들러 스마트폰으로 야채에 붙어 있는 태그를 확인하며 싱싱한 유기농 야채만을 엄선해 쇼핑을 마친다. 예전 같으면 계산하느라 긴 줄을 서야 했지만 스마트 태그 덕에 쇼핑 카드가 계산대만 지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원 엄마는 남편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게 된다.

스마트 홈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지원 엄마의 하루는 이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재 시점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단면을 보여 준다. 이 같은 디지털 라이프를 현실화 하는 토대는 광대역통합망(BcN)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3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계획의 수립을 마치고 2004년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광대역통합망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의 여러 통신 서비스 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망.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통신 속도인 1.5~2Mbps보다 50배 빠른 100Mbps급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고도화 된 통신망 구축과 함께 정부는 보다 편리하고 운택한 삶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경이 되면 지원 엄마처럼 외부에서도 집에 있는 각종 가전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가정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홈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전체 가구의 60% 수준인 1000만 가구가 홈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2006년 현재 스마트 홈 기술의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제공 되는 시범 서비스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각종 기기 제어 및 홈 오토메이션 단계를 넘어 양방향 멀티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홈 네트워크 시범 사업은 SK텔레콤과 KT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두 개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디지털 홈'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전의 600만 가구를 대상으



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2차 시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1차 사업 기간 동안 수도권, 대구, 광주 지역 7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두 컨소시엄은 2004년 말 기준으로 1300세대를 대상으로 홈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 양방향 DTV 등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2006년 현재 1차 시범 사업의 홈 오토메이션 단계를 넘어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쌍방향 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다. 2006년 현재 전국 주요 도시는 u-헬스 타운 구성에 한창이다. 몇몇 사례를 꼽자면 대전광역시는 2006년 상용화를 목표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아이엠넷피아, 포스코 건설은 2008년 송도 국제 도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u-헬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역시 판교인터넷파크조성사업조합과 분당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u-헬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HJ**